

본회, 95년 제 4회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6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이명복 부회장, 최상백 부회장, 기정도 부회장과 22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95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돈회관 매각설, 양돈 관련 3개단체 통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안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중 검정소의 인공수정센터(AI Center) 건립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인공수정정액을 무료공급하고 일부 농장 및 인공수정센터의 유통구조가 복잡한 현실에서 인공수정센터 설립이 소득사업이나 회원농가지원 사업측면에서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보류키로 했으며, 도별 양돈인 대회겸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서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 도별로 분산 개최토록 의결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무가 각 부서(양검정소 포함)의 실무를 관장토록 변경하였으며, 상반기 감사 지적사항인 직원들의 신원보증에 대한 규정 중 신원보증인 조건 및 보증인 첨부서류 등을 첨가하는데 동의하였고 95년 추경예산 심의를 하였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양돈회관 매각설에 대하여 협회 차원의 대책은 일단 진흥사업회 주식을 협회명으로 구입하여 양돈회관 매각을 저지하기로 했으며, 회장단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협

회

소

식

또 양돈관련 3개단체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여 모든 양돈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공식적으로 의결하였으며, 충남도협의회장인 김병문이사의 긴급제청에 따라 이번 축협중앙회의 「94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서;1995년」의 돼지 생산비의 축소 의혹에 대하여 이사진들의 강력히 대응키로 결정하고 먼저 회장단을 비롯한 이사진 일부가 축협중앙회 송찬원 회장에게 항의방문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금년 양돈인대회 도별로 개최키로 결정

지난 10월 12일 본회 전동용회장을 비롯 이명복 부회장, 최상백 부회장, 기정도 부회장과 도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일 있었던 제 4차 이사회에 의결된 95 양돈인대회의 서울개최는 장소, 시간 등의 제반여건상 곤란하여 각 도협의회별로 지방에서 11월 13일부터 30일 사이에 분산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지도부(서울 553-3942~6)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안내

구 분	시 간	내 용
접 수	09:30~10:30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수의과학연구소장 서울대 채찬희 교수
지역양돈인협의회	10:30~11:20	
결 의 대 회	11:20~11:50	
방 역 정 책	12:00~12:40	
질 병 방 역	12:40~13:30	
질 의 응 답	12:30~14:00	
중 식 · 폐 회	14:00~15:00	

본회, 자조금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본회는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8월 24일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사업을 허용하게 되므로서 지난

10월 13일 '95 양돈업 자조금사업 보조금 1억원(축진기금보조)을 교부해 줄 것으로 보조금 관리기관인 축협중앙회에 정식 요청했다.

양돈업 자조금 보조금은 회원농가들에서 출현한 2억원과 이 금액의 50%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축진기금보조) 1억원을 포함하여 총3억원을 이용, 양돈 생산물의 유통개선 및 소비홍보,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돼지고기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등에 주로 사용된다.

본회, 96년 종돈 시장접근물량 3천두로 확대 건의

농림수산부 축정 51532-666호의 96년도 종돈 시장접근물량 확대 계획서 제출 요청에 따라 본회는 지난 10월 13일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제스키병등의 돼지질병과 대량의 양돈단지 조성에 의한 대량 수요 발생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계획한 MMA물량 1,192두보다 2.52배 증가한 3천두(95년 건의물량과 동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건의서에 따르면, 연간 도태되는 종돈두수는 총352,976두(암 330,903두, 수 22,073두; 도태율 40% 기준)로 가정했을 때 연간 도태돈 보충용 종돈두수는 총96,522두(암 82,726두, 수 13,796두)로 이중 우수 종돈능력 유지상 필요에 의하여 수입을 3% 정도 고려한다면 2,896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회, 축협에 소매가격 인하 요청

본회는 최근 산지 돼지값과 서울 도매시장에서의 지육경락 가격은 폭락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더 위축되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본회 각 지부의 직판장과 축협중앙회 산하 직판장을 대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근 일반 정육

업체들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에 돼지고기 소매가격 인하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본회, 가공업무 일원화 촉구에 관한 전단 배포

본회는 「농축산물 가공업무는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한 홍보전단을 지난 10월 11일 각 지부에 배포했다.

현재 가축사육에서 도축까지의 원료생산단계는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도축 이후부터 소비까지의 가공·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외국에서도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축산물 관장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개방 시대에 가공산업 육성하여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 농축산업이 농림수산부의 업무권한 상실로 인해 일괄적인 책임 행정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회와 전국 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는 식품가공업무중 그동안 잘못 관장되어 온 농축산물 가공권을 농림수산부에 되돌려 수입개방에 따른 농축산업의 실질대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공업무는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라는 홍보전단을 각 농가에 배포하고 전국의 양축가들에게 가공업무 환원 노력을 촉구했다.

본회, 국방부에 돼지고기 군 급식 증량 협조 요청

본회는 10월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돈가 안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국방부장관에게 돼지고기의 군 급식 증량을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군 급식물량의 전체적인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 본부장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군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축

협중앙회에도 본회에서 국방부에 협조 요청한 바와 같이 돼지고기의 군납 확대 건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축협중앙회 등의 군납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받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 군인을 60만명으로 기준하였을 때 월 평균 574톤(연간 6,880톤)이고 장병들에게는 연간 1인당 11.4kg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이는 연간 국민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인 18.7kg의 6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본회는 군 급식중 돼지고기 경기 불황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돈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식매입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지난 10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과 이명복 부회장, 최상백 부회장, 기정도 부회장, 노영한 전무, 김재철 충북도협의회장, 하오조 경남도협의회장, 김병문 충남도협의회장, 조옥봉 대구·경북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국양돈진흥사업회 주식 매입 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은 전양돈 경영자클럽 회원들 의견을 듣고 본회 의견과 절충하여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가능한 애연가에 매입토록 결정하였다.

본회, 사료부가세 철폐를 위한 현수막 부착

본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사료부가세 영세율의 전면적인 적용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6월 28일 전면확대를 건의한 데 이어 민자당 정책실장 및 정책의장을 2차례 방문하였고, 국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위원장 양창식), 재정경제원, 각 정당의 정책의장에게 각각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의 전면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각 지부 및 지역에서 일

치단결하여 사료부가세 전면철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지부별로 현수막을 부착하기로 하고 각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 96년도 양돈수첩 제작

본회는 회원농가 및 지부들의 양돈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협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96년도 양돈수첩」을 제작, 전국의 양돈농가에게 각 도협의회 및 지부를 통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제작·배포될 「96년 양돈수첩」은 가로 15cm×세로 22cm(25절)의 크기에 300페이지 분량을 전국의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의 주소, 전화번호와 양돈관련 통계자료, 경영지표, 전국지도, 우편번호, 메모란 등이 수록되었으며, 제작을 위한 협찬금은 권당 2,200원으로써 전국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부별로 신청을 받았다.

본회는 오는 96년 한해도 양돈수첩이 양돈 회원농가와 양돈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96년 양돈수첩」제작에 만전을 기울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홍보부(서울 553-3942~6)로 문의하면 된다.

본회, 신임 상무에 김형균소장 발령

본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일자로 제2검정소 김형균 소장을 상무로 겸직 발령하였다.

신임 김형균 상무는 양검정소와 중앙회의 모든 부서를 총괄하면서 회장과 전무를 보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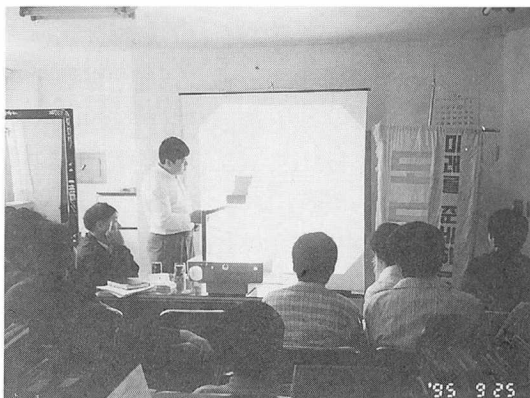
신임 김형균 상무

김형균 상무는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한후 제주대 교수를 역임하는 등 지금까지 축산업계에 몸담아 왔으며 89년 제2검정소 설립 당시부터 2검정소장을 맡아왔다.

충북도협의회, 제10차 도협의회 개최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10월 16일(월) 12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흥도갈비에서 충북도협의회 산하 전직,현직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0차 도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 문제를 긴밀히 도의하였다.

광주·장성지부, 돼지번식 사양 관리 및 질병세미나 개최



본회 전남 광주·장성지부(지부장 : 최희태)는 지난 10월 4일 개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회원농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도드람의 최광순 과장을 초빙, 돼지번식 사양관리 및 질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의 전면 실시와 돼지고기 소비 배가운동에 전 회원농가들이 동참할 것으로 다짐하였다.